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「금융소비자 보호법」 제37조 제1항  
경계의 틀을 바꾸면  
미래가 달라집니다.

금융개혁 돈이 드는 활기찬 경제

	<h1>보도자료</h1>
	<h2>2016. 2. 2.(화) 조간부터 보도 가능</h2>

담당부서	서민금융지원국	조성목 선임국장(3145-8150), 김용실 팀장(3145-8521)
배포일	2016. 2. 1.(월)	배포부서    공보실(3145-5786, 5790)    총 8매

**제 목 : ‘고수익’으로 유인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유의하세요**  
- 인터넷상에서 불법영업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505개사 적발

**1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적발 현황**

- 금융감독원은 '15년중 인터넷카페 및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한 금융투자업체\* 505개사를 적발하여,
  - 136개사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,
  - 406개사\*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물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하였음
- \* 406개사 중 37개사는 수사기관 통보와 중복
- 적발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489개사\*(96.8%)로 대부분을 차지,
  - 최근 무인가 불법영업 사이트는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회피

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적발 현황 (단위 : 건)

유형 건수	무인가 투자중개업	무인가 집합투자업	미등록 투자지문(일임)업	미신고 유사투자지문업	무인가 투자매매업	합계
'15.1~12.	489	4	3	9	0	505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## 2 금융소비자 유의 및 당부사항

### < 유의사항 >

- 불법업체를 통한 금융거래의 위험성 인식 필요
  -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·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 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으며, 전산장애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
    - 또한, 투자지문 명목의 과도한 회비, 빈번한 거래로 인한 과도한 매매 수수료 또는 투자금 횡령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우려됨
  - 따라서, ‘고수익 보장’, ‘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’, ‘대금 사고시 100% 책임보상’ 등과 같은 불법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

### < 당부사항 >

- 금융거래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필요
  - 불법금융투자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필요
    - 따라서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,
    - 불법금융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상담,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람

#### 불법업체 여부 확인 및 제보 방법

- ① 불법업체 여부 확인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<http://www.fss.or.kr>) → 방문자 맞춤메뉴 중 ‘민원인’ → 제도권금융회사조회
- ② 불법업체 제보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→ 민원·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사이버 불법금융행위제보 또는 콜센터 ☎(국번없이) 1332

### 3 향후 대응

- 금융감독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의 사이버상 불법영업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,
-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통보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의뢰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
- 또한,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위험성 및 폐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

- ※ <참고 1> 각 불법금융투자업체의 세부 적발내역
- <참고 2> 각 불법금융투자업체의 행위별 적발사례
- <참고 3> 각 불법금융투자업체 피해 사례

## 참고 1

## 각 불법금융투자업체의 세부 적발내역

①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489개 업체는

◦ 인터넷 카페, 블로그, 게시판 등에 ‘소액 증거금(예: 50만원)만으로 KOSPI200지수선물 투자가능\*’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고,

\* KOSPI200지수선물 등 파생상품거래는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, 선물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경우 3,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납입해야 함 (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)

- 결제대금과 관련하여 ‘사고 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’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면서 선물계좌 대여업체를 알선하거나,

◦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,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면서,

-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형태로 영업\*

\* 이러한 불법 선물중개업체를 ‘미니형 선물업체’라고 함

### 관련법규

◆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[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자본시장법’) 제11조, 제444조 제1호]

② 무인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4개 업체는

◦ 인터넷 카페, 블로그, 게시판 등에 ‘고수익을 보장한다’는 광고를 게재하고, 정식 인가된 것처럼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영업

### 관련법규

◆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(자본시장법 제11조, 제444조 제1호)

③ 미등록 투자자문·투자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3개 업체는

- ‘해외 FX마진거래를 통하여 월 3.5%의 수익을 제공’한다고 광고하거나,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,
-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결정을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영업

관련법규

- ◆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(자본시장법 제17조, 제445조 제1호)

④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9개 업자는

- 인터넷 카페, 블로그, 게시판 등에 ‘매매기법 배우기’, ‘트레이더 상담’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
- 인터넷카페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을 해주는 형태로 영업

관련법규

- ◆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(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, 제449조 제2항 제6호)

## 참고 2

## 각 불법금융투자업체의 행위별 적발사례

### 1 선물계좌 대여 방식의 무인가투자중개업

Kospi200 선물증거금(주간/야간) 서비스

구분	내용
대상종목	KOSPI 200 지수선물 중 최근 및 차월물
기초자산	코스피200지수
거래단위	코스피200선물가격×50만(거래승수)
결제일	3, 6, 9, 12월
상장결제일	1년 이내의 4개 결제일
가격의 표시	코스피200선물 수치(포인트)
호가가격단위	0.05 포인트
최소가격변동금액	25,000원 (50만원×0.05)
거래시간	08:00~15:04(만기일 08:00~14:45), 야간CME 18:00~익일04:54
최종거래일	각 결제일의 두 번째 목요일(공휴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김)
가격제한폭	기준가격 대비 상하 ± 10%
단일가격경쟁거래	계정시(08:00~09:00) 및 거래종료시 (15:05~15:15)
필요직거래종단	선물가격/현물가격 급변시 선물거래 일시중단
최소담보금	1구좌당 50만원이상
최대운용구좌수	다구좌 가능(고객센터 문의)
이용료	무료
매매수수료	0.0023%
오버나잇	1계약당 300만원(15:04, 야간CME 04:54 본인자금평가기준)
로스컷기준	1구좌당 본인자금 10만원 미만시 시장가 반대매매청산 (2구좌 사용시 1계약만 보유하고 있어도 20만원 미만시 청산됨)
입출금시간	AM 08:00 ~ 익일 AM05:00
만기결제	가능

회사소개 | 국내선물옵션 | 해외선물 | 서비스 신청

### 외선물 안전거래

선물옵션 1계약 50만원  
투자비용, 차수, 수수료 등 다양한 종류가

'최고의 성공 파트너' 글로벌에셋에서 함께합니다.

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 
[ ] 일계 최고 HTS로 로그인을 제공하며  
국내 및 해외 업무상의 확대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  
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점장은 성원을 보내주  
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고려의 소리를 더욱 경청  
고려이 원하는 서비스를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서  
지속적인 관심과 허락을 보내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.  
깊은 감사를 드리며,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.

회사소개 | 국내선물옵션 | 해외선물 | 서비스 신청

### 선물옵션 1계약 50만 원

증권사 수준의 HTS  
스마트에셋에서는  
최저의 증거금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끝없이  
페이지를 방  
별 금융사용과  
지는 시장 환경  
"그룹"으로서 그  
금융회사로 학습

신용등급 내역 | 해외선물 내역 | 일계 연계 신청

3개월 동안 상담기 | 달기

## ② 미니 선물거래 방식의 무인가투자증개업

미니 선물업체 [ ]입니다.

미니 선물 | 2015.08.03 03:35 | 조회 211 증인쇄

미니 선물업체  
미니 선물업체 [ ]입니다.  
저희 미니 선물업체 [ ]는 현재 국내(주.야간), 옵션(주간), 해외 선물(유로, 오일, 금) 등 총 9종목과 1:20(레버리지)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많은 미니 선물업체들의 과도한 이벤트에 현혹 되지 마시고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저희 골드cme와 소중한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.

www.[ ]net

회원님들의 미니 선물업체 이용시 혹시 모르는 대금사고에 걱정이 많으시죠?  
이젠 걱정하지 마세요!  
믿을 수 있는 미니 선물업체 추천하는 [ ]가 있습니다.

단 한번의 사고도 없는 미니 선물업체인 [ ]의 안정된 시스템으로 매매하세요,  
아래는 미니 선물업체 [ ]의 이벤트입니다.

## ③ 대여업체 알선 방식의 무인가투자증개업

이외에도 그 업체의 자본금상황이 어떨는지,  
운영기간이나 실제 이용하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지  
커뮤니티가 유용성있게 활성화 [ ]에 중요하겠죠.^^  
투자자분들도 개인적인 판단기준이 있고,  
자신에 맞는 HTS프로그램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 
**선물대여업체**를 선정하고 이용하는 것 또한 투자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,  
선부분 판단하시지 마시고 신중하시길 바랍니다.  
도움이 되실까 제가 이용하고 있는 **선물대여업체** 주소 남겨드릴게요~  
참고해보시고 성공적인 투자 진행하시길 기원합니다~

[http://me2\[ \]](http://me2[ ])

**① 무인가투자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인한 피해**

- 피해자 P는 인터넷 개인증권방송에서 선물투자를 자문하는 K업체로부터 선물대여계좌와 미니선물업체\*를 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, 선물계좌 대여업자인 ○○업체와 미니선물업체인 △△업체 등에 회원 가입
  - \* 한국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며, 자체적으로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업체
- 이 후, P는 상기 업체가 대여해준 계좌에 투자금을 넣고 선물거래를 하였으나, 상기 업체들이 공모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39백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신고함

**② 무인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혐의로 인한 피해**

- 피해자 Y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투자, 벤처기업 및 비상장기업 M&A를 통해 고수익을 배당하는 종합금융회사라고 광고하며 개인들로부터 펀드를 모집하고 있던 V업체를 믿고 3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,
- V업체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로 허위의 광고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, 현재 무인가 영업행위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에 있음

**③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로 인한 피해**

- 피해자 K는 주식카페의 주식투자연대에 가입하여 주식 종목추천을 받아 매매하던 중 카페회원인 A로부터 자산운용회사 대표라는 B를 소개 받고 공동투자계좌에 자금을 맡기라는 제안을 받음.
- K는 B로부터 원금 2억원에 주식대출 3억원을 더하여 5억원을 맡기면 원금만 6억 5천만원을 만들어주고, 손실이 나면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의 주식대출금을 포함하여 잔고가 총 5억 9천만원인 자신의 주식계좌를 B에게 맡겼음.
- 이 후 B의 매매행위로 K에게 총 173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, B가 자산운용회사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K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혐의 등으로 B를 고소함